

# 취재보도론

1. 보도의 ‘시의성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뉴스의 보도 여부는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.
- ② 사건 발생 시점과 보도 시점의 간격이 짧을수록 뉴스 가치는 높아진다.
- ③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.
- ④ 사건의 장소가 독자와 가까울수록 보도 가치가 높다.
- ⑤ 뉴스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.

2.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의 원칙과 그 응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르면?

< 보 기 >

- ㄱ. 요약형 리드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하며 서사적 흐름을 중시한다.
- ㄴ. 역피라미드(inverted pyramid) 구조는 핵심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부가 정보는 뒤에 배치하는 기사 구조이다.
- ㄷ. 피쳐(feature) 기사는 감정 묘사나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나 정서를 환기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.
- ㄹ. 나열형 리드는 연관된 주요 사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며 정보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.
- ㅁ. 스트레이트(straight) 기사에서의 리드는 독자의 감정 이입을 유도하는 서사적 도입보다 사실 중심의 전달을 중시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ㄱ, ㅁ
- ④ ㄴ, ㄷ
- ⑤ ㄷ, ㄹ, ㅁ

3. 피쳐 인터뷰(feature interview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물 그 자체의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.
- ② 인터뷰 장소가 그 인물의 집, 작업실, 연구실이라면 해당 공간에 대한 스케치가 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.
- ③ 외형적인 활동보다 인물의 이념, 주장, 기억, 상처, 꿈과 같은 내면 중심으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④ 인물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인물의 활동이나 생각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.
- ⑤ 기사를 작성할 때 문답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는 문답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인터뷰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.

4. 언론의 보도 관행 및 취재원 인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르면?

< 보 기 >

- ㄱ. ‘브리핑(briefing)’은 비보도를 전제로 한 정보 제공 방식으로, 기사는 해당 내용을 취재의 단서로 삼는 것도 금지된다.
- ㄴ. ‘오프 더 레코드(off the record)’는 보도에 직접 인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,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확인되면 별도의 출처로 보도할 수 있다.
- ㄷ. ‘엠바고(embargo)’는 보도 시점 이전까지 보도를 유예해달라는 합의로, 언론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.
- ㄹ. 인용 보도를 할 경우 ‘정부 관계자에 따르면’처럼 출처를 일반화할 수 있으나, 독자의 신뢰를 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ㅁ. 기사는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그 정보가 공익성과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익명 인용이 허용될 수도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ㄷ, ㅁ
- ④ ㄱ, ㄴ, ㅁ
- ⑤ ㄴ, ㄹ, ㅁ

5. 취재·보도 관행으로서의 엠바고(embargo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르면?

— < 보 기 > —

- ㄱ. 본래 상선의 입항 금지나 수출 제한 등 조치를 취할 때 사용하는 통상 용어에서 유래했다.
- ㄴ. 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언론사나 기자에게 제공하면서 정해진 시점 이후에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‘시한부 보도 유보’를 뜻한다.
- ㄷ. 안보, 외교, 경제 등 국익이나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안에서 주로 활용되지만, 언론사의 업무 편의나 정부기관의 정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.
- ㄹ. 취재원과 언론 사이의 약속이므로, 언론사나 기자단이 엠바고 수용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
- ㅁ. 엠바고를 수용한 뒤에 특정 언론사나 기자가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, ㄹ
- ④ ㄷ, ㄹ, ㅁ
- ⑤ ㄱ, ㄴ, ㄷ, ㄹ

6. 신문 기사와 달리 방송 기사를 작성할 때 기자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방송 기사는 눈으로 읽지 않고 귀로 듣기 때문에 신문 기사보다 더 짧고 쉽게 써야 한다.
- ② 방송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시청하는 영향력이 큰 공적 매체이므로,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.
- ③ 앵커 멘트는 기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되, 본문과의 중복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.
- ④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를 사용하므로 유행하는 신조어와 비속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.
- ⑤ 자막, 영상, 음악, CG 등의 효과를 적절히 살려 기사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.

7. 다음 기사 문장 중 교열 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A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최모씨를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.
- ② 군 관계자에 따르면 “이제 논의 시작 단계로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다”고 말했다.
- ③ 최근 20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60%가 “굳이 결혼하지 않겠다”고 답했다.
- ④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23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선 아래로 떨어졌다.
- ⑤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이번 폭발로 850가구가 파괴됐다.

8. 재난 보도에서 기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태도와 보도 지침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르면?

— < 보 기 > —

- ㄱ.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사망자나 실종자의 명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발표 이전에도 내부 제보를 통해 가능한 한 신속히 확보하여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ㄴ. 보도 경쟁을 이유로 현장 기자에게 과도한 취재 부담을 주어 정확성이나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.
- ㄷ. 재난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SNS에 공개한 글이나 사진은 취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출처 없이 보도해도 된다.
- ㄹ. 다수의 목격자가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에는, 다소 자극적인 유언비어라 하더라도 알권리를 위해 뉴스에 반영할 수 있다.
- ㅁ. 언론의 역할 중에는 취재와 보도 이외에도 방재와 복구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ㄷ
- ③ ㄴ, ㅁ
- ④ ㄷ, ㄹ
- ⑤ ㄴ, ㄹ, ㅁ

9. 탐사 보도(investigative reporting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장기간의 취재를 통해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거나 심층적 분석을 하는 보도이다.
- ② 권력기관의 부정이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는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.
- ③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건이나 문제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
- ④ 관계자의 제보나 인터뷰, 내부 문건 발굴과 분석, 정보공개 청구,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취재 기법이 활용된다.
- ⑤ 공익을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취재 대상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 취재 윤리에 유의해야 한다.

10. 가짜 뉴스(fake news)와 팩트 체크(fact-checking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팩트 체크는 보도 전 사전 검증을 포함하며, 뉴스 생산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이다.
- ② 가짜 뉴스는 명확한 정의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용어로 남용되며, 종종 언론의 정당한 보도까지도 부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.
- ③ 팩트 체크 기관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, 기업, 정부 등으로부터 독립된 편집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- ④ 팩트 체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사실 왜곡이 초래한 사회적 영향까지 분석하는 확장된 저널리즘 행위로 본다.
- ⑤ 가짜 뉴스는 일반적으로 의도적 허위 정보와 사실 기반의 풍자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된다.

11. 언론 보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게이트키퍼 이론(Gatekeeping Theory)은 뉴스 소비자의 선택과 취향이 뉴스 유통의 결정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.
- ② 프레임링 이론(Framing Theory)은 기자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틀에서 뉴스를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한다.
- ③ 침묵의 나선 이론(Spiral of Silence Theory)은 사회적 합의 형성이 개인의 의견 표현을 더 촉진시킨다고 본다.
- ④ 확증편향(Confirmation Bias)은 개인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인지 균형을 이루려는 성향을 의미한다.
- ⑤ 의제설정 이론(Agenda-Setting Theory)은 언론이 특정 사안을 반복적으로 강조할수록 수용자들이 그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본다.

12. 페니 프레스(penny press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19세기 초 미국에서 도시 노동자 계급을 타겟으로 등장한 저렴한 가격의 대중신문을 말한다.
- ②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진보 성향의 신문이었다.
- ③ 범죄와 성적 추문 등 선정적인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사화하였다.
- ④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큰 활자의 헤드라인이나 삽화 등 시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.
- ⑤ 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광고를 게재한 상업 신문이었다.

13. 해외 언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BBC: 영국의 공영 방송이자 세계 최초의 공영방송사로, 수신료를 재원 삼아 운영된다.
- ② CNN: 미국의 24시간 보도 전문 케이블 채널로,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창립자이다. 걸프 전쟁 당시 바그다드 실시간 생중계를 계기로 급성장했다.
- ③ 뉴욕타임스: 미국의 일간신문으로, 1970년대 워터게이트 특종 보도로 유명하다. 2013년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에 의해 인수되었다.
- ④ 르몽드: 프랑스의 일간신문으로, 국제 뉴스에 강하며 중도 우파/보수 성향으로 유명하다.
- ⑤ 알자지라: 사우디아라비아에 본사를 둔 위성 방송사로, 비서구적 시각의 국제 뉴스로 유명하다.

14. 언론 보도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영역에서의 촬영은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.
- ② 공익을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얼굴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피해자 사진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.
- ③ 집회 현장에서의 군중 촬영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.
- ④ 초상권 침해는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.
- ⑤ 초등학교들의 행사 장면은 학교장의 동의만 있으면 촬영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.

15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 중인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②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이다.
- ③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- ⑤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16.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려면 언론사의 고의·과실이나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.
-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.
- 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「민사소송법」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7.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려고 한다. A후보 지지율이 41%, B 후보 지지율이 39%이며 표본오차가 95% 신뢰수준에서  $\pm 3\%$  인 경우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기사는?

- ① A후보 41%, B후보 39%로 A후보가 B후보보다 근소하게 우세했다.
- ② 오차범위 내에서 A후보가 41%로 1위, B후보가 39%로 2위를 차지했다.
- ③ A후보 41%, B후보 39%로 A후보가 2%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④ A후보 41%, B후보 39%로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경합하고 있다.
- ⑤ A후보 41%, B후보 39%로 A후보가 B후보보다 2%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18. 다음 기사 제목 중 밑줄 친 부분의 어법이나 맞춤법이 옳은 것은?

- ① “제 노래 어떻게 변했는지 한꺼번에 들려 드릴게요”
- ② “김성태 작 ‘산 넘어 저쪽’ 등 3편”
- ③ “시청자 사로잡은 애끊는 연기”
- ④ “씻가 총액 무시” 투신 반발
- ⑤ 검찰 ‘양자 진술 틀리다’ 기소 안 해

19. 포털사이트,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뉴스 플랫폼의 활용의 일상화가 뉴스 생산과 이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 제목과 내용의 기사가 많아지면서 뉴스 콘텐츠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.
- ②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관심과 취향에 맞춰 추천한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났다.
- ③ 신문이나 방송을 직접 소비하거나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언론사의 수익이 감소했다.
- ④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손쉽게 노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털 입점을 노리는 소규모 언론사가 난립하는 일이 벌어졌다.
- ⑤ 플랫폼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검증된 뉴스가 유통됨에 따라 허위 조작 정보가 감소하고 뉴스의 신뢰도가 향상되었다.

20. 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(AI)을 뉴스 제작에 활용한 사례이다. 각 사례에서 한국기자협회의 ‘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’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절한 판단을 한 것만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르면?

< 보 기 >

- ㄱ. 기자 A는 생성형 AI가 작성한 기사 원고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송고하면서 기사의 출처에 “AI가 작성함”을 명시했다.
- ㄴ. 언론사 B는 생성형 AI가 요약한 기사 초안이 내용과 맥락에 적절한지 사람이 검토한 뒤 보도에 활용했다.
- ㄷ. 기자 C는 생성형 AI로 생성한 유명인의 합성 이미지를 보도에 사용하면서, 해당 이미지가 실체가 아님을 설명했다.
- ㄹ. 언론사 D는 생성형 AI로 작성한 기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, 이를 신속히 수정한 뒤 오류 사실을 기사에 고지했다.
- ㅁ. 언론사 E는 생성형 AI가 자동 작성한 기사 초안을 내부 검증 없이 그대로 활용하면서 기사 말미에 AI 사용 사실은 분명하게 공개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ㄹ
- ③ ㄷ, ㄹ
- ④ ㄱ, ㄷ, ㅁ
- ⑤ ㄴ, ㄹ, ㅁ